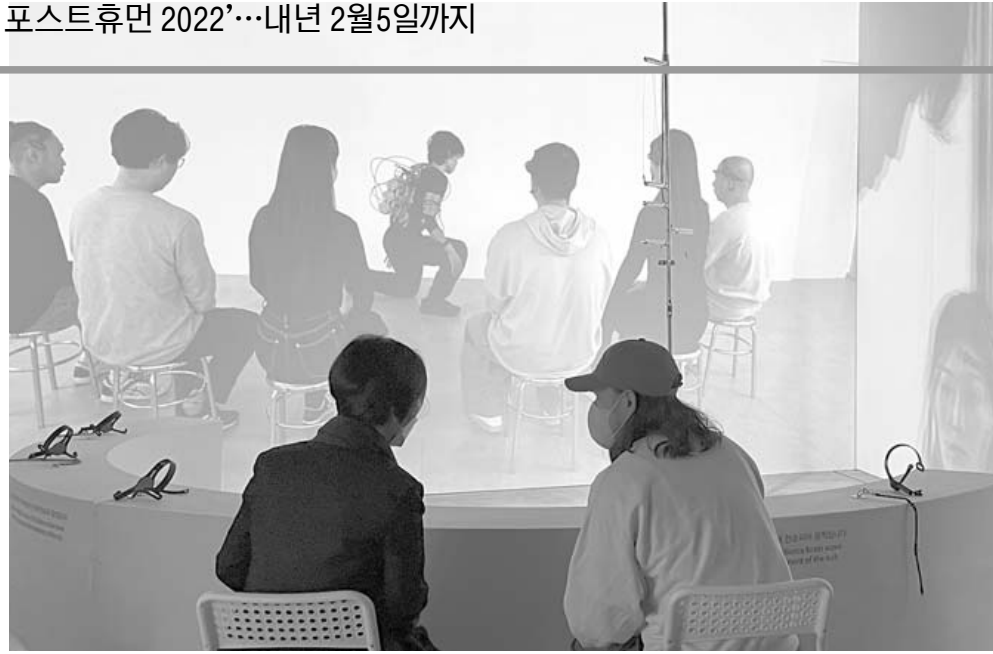


●ACC 레지던시 결과전 '지구 생존 가이드 : 포스트휴먼 2022'...내년 2월5일까지

# 인간 그 너머의 세상을 마주하다



관객의 뇌파에 의해 신체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피포밍 수트' 퍼포먼스 공간

입주작가 18팀

인류세 시대, 현대인에 질문 던져

실험작 20여점 통해

윤리적 성찰·실천적 방안 모색

사람 키보다 높은 커다란 화면 위에 글귀가 한 줄, 두 줄 모습을 드러낸다. 광주의 실제 거리를 다니면서 혹은 가상 지도를 이용해 얻은 광주 각 지역의 역사, 지리, 문화 등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시 한편이 완성된다. 시를 쓰는 인공지능 '시아(SIA)'와 함께 하는 관객참여형 프로젝트 '시간(詩間)여행'이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작곡하는 등 그동안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만 생각했던 창작 분야에서까지 인공지능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인간과 비인간 주체들이 공존하는 시대, 윤리를 모색하고 새로운 교감을 시도하며 상상의 세계로 안내하는 전시가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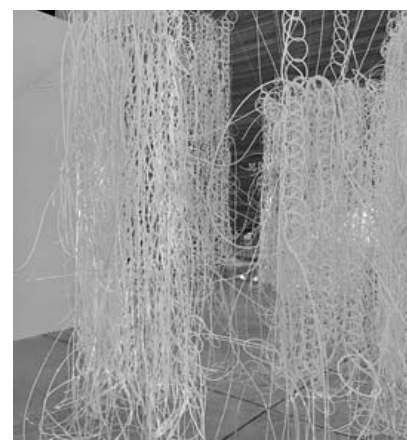
'지구 생존 가이드 : 포스트 휴먼 2022'가 내년 2월5일까지 ACC 문화창조원 복합전시 1관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이번 전시는 올해 ACC 입주작가 레지던시 참여자가 ACC의 도움을 받아 창·제작한 예술 실험 결과를 선보이는 자리다.

전시 제목은 도나 해러웨이의 '지구 생존 가이드'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차용한 것으로, 팬데믹과



물의 오염 상황에 따라 현재 인간과 자연이 처한 위기를 보여주는 작품 '물처럼 살기'



자연적 요소와 인공적 매체를 서로 엮어 인공 자연으로 구현한 '공존, 물질과 감각'

기후위기를 맞은 인류세 시대, 현대인들이 살아갈 태도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인간과 기계, 비인간 주체들 간의 공존과 연대를 꿈꾸는 포스트휴먼의 윤리적 성찰과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 입주작가 18팀의 작품 20여점을 만날 수 있다.

'인간과 동물, 기계의 결합, 그 경계는 무엇인지',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정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와 같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세상의 생명과 함께 공존하는 '포스트 휴머니즘'에 관한 각자의 상상을 펼쳐낸다.

전시장은 각 작품이 갖는 복합적 의미와 무수한 관계성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구성했다. 또 윤난화가 계속되면 지구가 물에 잠길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관객이 중앙 작품을 내려다볼 수 있는 비계발판 통로를 연출하는 등 전시 주제에 맞는 관람 동선을 설정했다.

이밖에도 관객의 뇌파에 의해 신체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피포밍 수트', 자연적 요소와 인공적 매체를 서로 엮어 인공자연으로 구현한 '공존, 물질과 감각', 물의 오염 상황에 따라 현재 인간과 자연이 처한 위기를 보여주는 '물처럼 살기' 등 작품들은 포스트휴먼의 앞으로의 실천방향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이강현 전담장은 "이번 전시는 완결된 작업이 아닌 '방식' 자체로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고민하는 작업들을 선보이는 자리다"며 "미래 예술을 향한 갈망과 고정된 예술 언어에 저항하는 실험적 작품에서 새로운 예술미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 한결 같이 공경하면 기묘를 얻을 수 있으려나



장희구 박사 (484)  
漢詩 향기품은 변안시조

이 작품을 읽고 있노라니 조선 중기 박인로가 쓴 '산지령'(産芝嶺)이란 시조 한 수가 생각난다. '산지령 올라오니 일신이 향기롭다 / 사호(四皓) 상산(商山)에 이 지령(芝嶺) 아니던가 / 산로(山路)에 구름이 깊으니 아무런들 모르노라'고 했다. 시에서 보인 '사호상산'은 한나라 때, 네 명의 선비들이 불사이군이라 하고 벼슬을 마다하고 은거했던 곳이다. '아무리 지초를 찾아도 보이지 않아서 / 황황하여 무엇을 잃은 듯이 했다'고 읊었던 시 한 수를 변안해 본다.

'한결 같이 공경하면 기묘를 얻을 수 있으려나'(産芝嶺)로 제목을 붙여 본 오언절구다.

작가는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1554-1637)으로 조선 중기의 철학자다. 류성룡 등의 천거로 여러 차례 내외의 관직을 받았으나, 1602년(선조 35) 공조좌랑으로 부임해 정부의 주역 교정사업에 참여하고 이듬해 잠깐 의성현령으로 부임한 것 외에는 모두 사양하고, 오직 이기철학에만 몰두했다.

위 한시 원문을 의역하면 '아무리 지초를 찾아도 보이지 않아서 / 황황하여 무엇을 잃은 듯이 했다 // 하필이면 밖에서 구할 것이 있겠나 / 한결 같이 공경하면 기묘를 얻을 수 있으려나'이라는 한 덩어리 시상이다.

위 시제는 '산지령을 보면서'로 번역된다. 산지령은 입암 28경의 중의 하나로, 글자 그대로 지초(芝草)가 많이 생산되는 '염마루'라는 뜻이란다. 시인과 같은 시대의 인물이면서 여헌을 찾아 자주 이곳을 드나들던 당대의 문장가 노계 박인로가 이곳에서 입암28경을 찬양하는 입암29곡(立巖二十九曲)이란 시조와 '입암별곡'(立巖別曲)이란 가사를 남겼다. 또 근래에는 소설가 김원일이 이곳을 무

産芝嶺(산지령)  
여헌장현광

아무리 영지 찾아도 보이지 않아  
황황하여 무엇을 잃은 듯도 한데  
이왕에 밖에서 구하나 공경하면 얻으리.

覓芝芝不見 遑遑如有失  
曷지지부견 황황어유실  
何必求諸外 一敬效奇實  
하필구제의 일경기효실



대로 장편 '바람과 강'(1985)을 쓰기도 했던 곳으로 알려진다.

시인은 이미 이런 고사의 깊은 뜻에 관심을 갖고 지초를 찾기에 깊은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시상을 만지고 있음을 본다. 아무리 지초를 찾아도 보이지 않기에, 황황하여 무엇을 잃은 듯이 했다고 했다. 지초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찾았다는 시적인 구성이다.

화자는 산지령에 올라 이것을 구하려는 뜻을 접고 내적內의 자기의 생활 주위에서 찾아보려는 시상을 떠올린다. 하필이면 내가 밖에서 이것을 구하려고 했겠는가 묻고, 한결같이 공경을 제일로 삼으면 기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 합리화 쪽으로 시선을 되돌려 버리는 시상 앞에 서본다.

※한자와 어구

覓芝: (산지령에 와서) 지초를 찾다. 芝不見: 지초가 보이지 않았다. 遑遑: 황황하다. 허둥지둥 매우 급하게. 如有失: 무엇을 잃은 듯하다. // 何必: 어찌하여 하필이면. 求諸外: 밖에서 구하다. 一敬: 한결 같이 공경하다. 奇效實: 기묘를 얻을 수 있으리라. 큰기묘를 채우다. <시조시인·문학평론가(사)한국한문교육연구원 이사장>

## 제19회 국제PEN광주문학상에 박영덕 수필가 선정

국제PEN광주지역위원회가 주최하는 제19회 국제PEN광주문학상에 박영덕 수필가가 선정됐다.

올해 수상작으로 선정된 박영덕의 수필집 '말씀의 우물'은 서술성이 뛰어나고 철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소통과 공감의 장점을 지닌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감정의 흐름, 제재 사용의 감각이 풍부하고 행간의 운율이 탁월하며 착상 단계의 진정성 수사학적 기술 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영덕 수필가는 1992년 월간문학으

올해의 작품상 차행득 시인 수상



박영덕 수필가

차행득 시인

로 등단했으며 한국문인협회 문학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다.

아울러 제9회 국제 PEN광주 올해의 작품상을 받은 차행득 시인의 시 '민들레 민들레'는 민들레의 끈질기고 강인한 삶을 끌어와 독자들에게 강한 의지와 정신을 북돋워주는 시적 자아의 강한 메시지를 높이 샀다.

한편, 국제PEN광주문학상 시상식은 28일 오후 3시30분 전일빌딩 다목적 홀에서 열린다. /최명진 기자

## 상상력 키워줄 문화예술 탐험 떠나볼까

ACC재단 '모여라 어린이 겨울탐험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내년 1월8일부터 2월26일까지 ACC 어린이창작실험실과 어린이도서관 등에서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모여라! 어린이 겨울탐험대'를 운영한다.

▲놀이로 탐험 ▲예술로 탐험 ▲이야기로 탐험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총 9개의 세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아시아 문화 속에서 겨울을 탐색해보기도 하고 디지털 기반 예술

창작 활동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디지털 창작도구를 활용해 만든 작품을 메타버스에서 공유해보는 '안녕 디지털, 나의 영웅이 되어줘!'가 시범 운영된다.

아울러 현대무용가 홍승엽과 함께하는 '몸으로 예술놀이', 코딩·게임으로 스마트 블록 로봇을 창작해보는 '용궁으로 간 블록 로봇'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유료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내달 2일 오전 10시부터 ACC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최명진 기자

그린알로에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